

인 1734년이다.
 ㄱ. 「동궐도(東闕圖)」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이다. 그 제작 시기는 1828~1830년, 즉 '순조' 때로 추정된다.
 ㄴ. 장승업(1843~1897)은 '철종' 때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화가이다. 「삼인문년도(三人問年圖)」의 제작 시기도 철종 때 또는 그 이후로 추정된다.

06.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들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 ② 이들의 상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에서 화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 ③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 ④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정답 ④
 해설 : 왜구(倭寇)란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안 지역을 약탈하던 일본인 해적 집단을 말한다. 왜구의 활동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고려 말기였다. 당시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 분쟁을 거듭하던 일본은 그 중 북조가 멸망하면서 여기저기서 항쟁이 일어났고, 중앙의 통치 권력은 지방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지자, 각 지역별로 무력을 갖춘 상인 또는 해적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안지역을 침탈하였다.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침입'한 것이 아니다.

07. <보기>는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가)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나) 서울의 해화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다)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자 연설했다.
 (라) 미 군정은 좌·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를 구성했다.
 (마)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 ① (가)-(나)-(다)-(라)-(마)
- ② (가)-(라)-(마)-(나)-(다)
- ③ (다)-(가)-(라)-(마)-(나)
- ④ (마)-(가)-(다)-(나)-(라)

정답 ③
 해설 : (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년 6월).
 (가) 좌·우 합작 7원칙(1946년 10월).
 (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1946년 12월).
 (마)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년 5월).
 (나) 여운형 암살(1947년 7월).

08.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사의 법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손이 된다. (……) 고조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에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범청으로 ㉠ 득난(得難)이 되었다.

- ①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 ② 대귀족으로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
-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
- ④ 최고 귀족인 왕족과 왕비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8. 정답 ①
 해설 : <보기>의 자료는 최치원이 지은 '성주사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문'이다(2017년 지방직 7급 기출). '득난'(6두품)이라는 신분이 있었던 국가는 '신라'이다.
 ① 갈문왕(葛文王)이란 왕의 아버지나 동생, 왕비의 아버지 등 왕과 일정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준 '신라'의 칭호였다.
 ②, ③ 8성의 귀족이 있었고, 정사암 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있었던 나라는 '백제'이다.
 ④ 고추가가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이다.

09.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ㄹ-ㄷ-ㄱ
- ③ ㄷ-ㄹ-ㄴ-ㄱ
- ④ ㄹ-ㄷ-ㄴ-ㄱ

정답 ③
 해설 : ㄷ. 직선제 개헌은 제1차 개헌, 제5차 개헌, 제9차 개헌이다. 부통령 제도는 제1공화국 때 있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한 개헌은 제1차 개헌(1952)이다.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한 개헌은 제7차 개헌(1972, 유신헌법)이다.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7년으로 한 개헌은 제8차 개헌(1980)이다.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를 5년으로 한 개헌은 제9차 개헌(1987)이다.

10. <보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9성을 개척했다.
 ㄷ.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영토로 편입시켰다.
 ㄹ.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 ③ ㄷ-ㄱ-ㄴ-ㄹ ④ ㄹ-ㄴ-ㄷ-ㄱ

정답 ③
 해설 : ㄷ. 강동 6주 확보(993년, 성종).
 ㄱ. 귀주 대첩(1019, 현종).
 ㄴ. 동북 9성 개척(1107, 예종).
 ㄹ. 개경 환도(1270, 원종).

11. <보기>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의 총성파들은 약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 ①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하였다.
- ②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 ④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정답 ②
 해설 : 조병옥이 사망하여 '단일후보'가 된 인물은 이승만이다.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으나,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일어난 사건이 '3·15 부정선거(1960)'이며, 이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1960)'이다.
 ② 1960년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부정 선거 규탄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중 경무대(대통령 관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하여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① 민주회복국민회의(1974)는 민청학련 사건 이후 만들어진 조직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하였다.
 ③ 부마항쟁(1979)은 YH 무역사건 및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박탈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④ '서울의 봄'이란 1980년 5월 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였던 대규모 시위를 말한다.

12.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은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 ②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칭한다.
- ④ 숙종 20년(1694)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정답 ②
 해설 : 경신환국(1680)의 결과 남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놓고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졌다. 이 때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가 되었고, 윤증은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① 제2차 예송논쟁(갑인예송,1674)으로 집권한 '남인'은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으로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기사환국'이라 칭한다.
 ④ 숙종 20년(1694) '서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복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이를 '갑술환국'이라 한다.

13. 조선시대 노비 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슬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 수는 슬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
- ④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정답 ④
 해설 : 외거하는 사노비가 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가지게 될 때 그 토지를 사경지(私耕地)라 하였고,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을 상당부분 주인이 가져가게 될 때 그 토지를 작개지(作介地)라고 하였다.
 ①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고, 일정 기간 보충군의 역을 수행하는 등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상속할 수 있었다. 다만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할 수는 없었다.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슬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사노비 중 '외거노비'가 노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4. <보기>의 인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니, (㉠)이(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 ①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
- ②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집필하였다.
- ③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

정답 ②
해설 : 16세기에는 사림의 존화주의적, 왕도주의적 정치 의식과 문화 의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서가 편찬되었다. 그들은 단군보다도 기자를 더 높이 숭상하면서 기자 조선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였다. 1580년(선조 13) '이이(1536~1584)'가 저술한 「기자실기」가 그 대표적 저술이다.
② 이이는 「기자실기」 외에도 「성학집요」, 「격몽요결」, 「동호문답」, 「만언봉사」 등을 집필하였다.
①, ③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고, 유성룡 등에게 학설이 계승된 인물은 이황(1501~1570)이다.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한 인물은 서경덕(1489~1546)이다.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① ㉠은(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 ② ㉡은(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답 ②
해설 : 「과농소초」를 집필한 ㉠은 박지원(1737~1805)이고, 「마과회통」을 저술한 ㉡은 정약용(1762~1836)이다.
② 정약용은 여전제(閭田制, 여전론) 실시를 주장하였다. 여전제는 부락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도였다. 그래서 그는 그 대안으로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들여서 가난한 농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영 농민을 육성하고, 아직 국가가 사들이지 못한 지주의 토지는 병작 농민에게 골고루 소작하게 하는 정전제(井田制)를 제시하였다.

- ① 신유사옥(신유박해, 1801) 때 유배형에 처해진 인물은 정약용, 정약전 등이다.
- ③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무역 등을 주장한 인물은 박제가이다.
- ④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은 유형원이다.

16.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 태백광노(太白狂奴) 또는 무치생(無恥生)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함

- ① ‘훈’과 ‘백’ 중 ‘훈’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윤세복이 만주에 세운 동창학교에 참여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 ④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정답 ④
해설 : 태백광노, 무치생이라는 별호를 쓰고, 안중근전을 저술한 민족주의 역사학자는 박은식(1859~1925)이다.
① 박은식은 ‘훈’과 ‘정신’을 강조하였다.
② 동창(東昌) 학교는 1911년 윤세복 등이 만주에 세운 학교이다. 박은식은 이극로, 신채호 등과 함께 이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③ 박은식은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이 되었다.
④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었던 김구(1876~1949)가 의열투쟁을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 10월에 조직되었으므로, 박은식이 참여할 수 없었다.

17. <보기>의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太郎), 스티븐스(Stevens)
(나)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 ① (가)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 ② (나)의 3개의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했다.
- ③ (가)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 ④ (나)의 철도 건설에 토지·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정답 ③
해설 : ③ (가)의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이들은 ‘제1차 한일협약(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한일각서)’에 따라 ‘을사조약 이전’인 19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① 이들은 대한제국 정부

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②, ④ 경인철도 부설권은 미국이 차지하였다(1896) 일본에 넘어갔고(1899년 완공), 경부철도 부설권은 처음부터 일본이 가져갔다(1894). 경의철도 부설권은 프랑스가 차지하였다(1896) 일본에 넘어갔다(1904년 강제 착공, 1906년 완공). 철도 건설에 토지·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고, 일제는 이를 강압적으로 억눌렀다.

「경부철도 방해죄, 조선인 무단 처형」
 “바로 이 하얀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세 명의 코레아 농부들이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토지를 빼앗긴 데 대한 항거의 뜻으로 최근에 완성된 철로를 부수려다가 발각되어 무참히 총살을 당한 장소이지요. 이 십자가 세 개에 몸이 묶인 세 명의 불쌍한 ‘죄수’들이 여기에 서 있었고, 땅이 울통불통한 저쪽에 일본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군인들은 57발의 총탄을 날렸습니다. 코레아인들의 몸은 벌집이 되어 죽었지만, 또한 시체를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시체는 이곳에 몇새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매장하기 위해 시체를 옮길 때는 독수리와 육식 조류들이 얼굴을 파먹어 신분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 -

18.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귀신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하겠는가.

- ① 동천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 ②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 ④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정답 ②
 해설 : <보기>는 살수대첩 때 을지문덕이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이다. 이때 고구려군은 살수에서 크게 승리하였다(612).
 ① 살수대첩은 ‘영양왕 때’ 일어났다. 동천왕 때에는 위나라의 관구검에게 피해를 입었다.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한 것은 안시성 전투(645)이다.
 ④ 백강 전투(663)는 백제 부흥 운동과 관련하여 일어난 전투이다.

19.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해는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 ② 제2대 무왕은 산둥지방의 등주(登州)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 ③ 제3대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그리고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 ④ 제5대 성왕 때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답 ④
 해설 : 제10대 선왕(818-830) 때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발해의 활발한 대외 정복 활동의 결과, 발해는 선왕 대에 이르러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하고 오히려 북쪽 연해주 지역으로 더 진출한 형세를 갖게 되었다. 또한 문왕 때에 설치한 3경에 서경(西京)과 남경(南京)을 더하여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하는 행정구역도 완비하였다. 선왕의 중흥 노력에 힘입어 그 다음에 즉위한 제11대 왕 대이진(831-857)으로부터 제12대 대건황(857-871), 제13대 왕 대현석(872-893)에 이르기까지 크게 융성하여 마침내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릴 만큼의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20.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북주에 이르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흥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 ①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 ②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

정답 ④
 해설 : 흥건적이 침입하였을 때 북주(안동)로 몽진하였던 왕은 공민왕이다. 북주는 북쪽의 흥건적이거나 남쪽의 왜구 등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분지 지형이었으며 경상도 교통의 요지로 물산이 풍부했던 점, 그리고 왕실을 비롯해서 흥언박(洪彦博) 등 고려의 중신들과 깊은 관련을 지닌 곳이었다는 점에서 피난지로 선택되었다
 ① 공민왕은 신변 호위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자제위(子弟衛)를 설치하였다(1372).
 ② 공민왕은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변정도감을 다시 설치하게 하였다(1366).
 ③ 공민왕은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1735).
 ④ ‘창왕’은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1389).